



강화도의 역사적 풍상과 함께 해온 정족산 소나무는 활엽수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자연천이에 맡겨둔다면 소나무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강화는 속리산에서 올라온 한남정맥이 서해를 건너 방울 된 섬이다. 그 섬의 동남쪽에 자리한 정족산(鼎足山)은 해발 222m로, 마니산의 한 줄기가 북동쪽으로 뻗어 솟구친 세 봉우리의 산이다. 산의 모양새가 발이 셋 달린 가마솥(鼎)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정족산 품안에 자리한 전등사(傳燈寺)는 고구려 소수림왕 때인 381년 아도화상이 진종사(眞宗寺)라는 이름으로 초창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일부에서는 후대의 윤색이라고 하지만, 아도가 신라 평민 선산 모래네집에 기속하면서 불법을 전하고 도리사를 창건한 것을 보면 이해가 간다.

**삼랑산성 4개 성문이 산문 역할**

전등사는 산문이 따로 없다. 정족산 능선을 이은 삼랑산성(三郎山城)의 성문들이 산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정족산성이라고도 하는 삼랑산성의 둘레는 총 2,914m로, 4개의 성문이 전등사를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에 나뉘었다.

등문으로 가는 차도 주변에는 키 큰 소나무들이 잡목숲에 우뚝우뚝 자리해 있고, 그 아래로 진달래가 때때로 만발하다. 관목인 진달래는 소나무와 공화가 잘 맞아 정족산 곳곳에서 소나무와 함께 군락을 이루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내건 연등과 씨 잘 어울린다.

외국인들 가운데는 우리나라 꽃으로 무궁화보다 진달래를 더 쉽게 떠올리는 이들이 있다. 놀랍게도 진달래의 영어이름이 'Korean rosebay' 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위에 강하고, 씨가 잘 트고, 토질을 가리지 않는 것은 꼭 우리의 민족성을 닮았다.

등문길과 남문길이 만나는 곳에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다. 수령이 각각 5백~6백년 되는 이 나무들에 애뜻한 전설이 있다. 조선 말, 관아에서 해마다 전등사에도 은행을 따

# 소나무 숲 진달래 우리 민족성 닮아

다가 공출토록 했는데, 해가 갈수록 공출을 요구하는 양이 늘어났다. 이에 추송대사가 은행이 열리지 않으면 공출의 고통도 없으리라 하고는 도술을 부려 은행이 열리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즉, 암나무를 솟나무로 바꿔놓은 것이다. 그 후부터 전등사에 대한 공출 탄압도 그쳤다고 한다.

암나무가 솟나무로 변하는 일은 생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이야기는 나무가 인간을 위해 도움을 베풀고, 또 인간은 그러한 나무를 귀중하게 보호해 온 우리의 전통을 잘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대조루 앞에는 큼직한 주엽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어린 키 높이에서 두 줄기로 갈라져서 높이가 10m 가까이 자랐다. 주엽나무는 낙엽활엽수 교목으로, 줄기와 가지에 길고 예리한 가시가 나 있다.

전등사의 주엽나무는 가시가 성글어서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다. 나무도 늙으면 남을 해치는 가시를 뽀글어내는 법이다.

**대웅보전 나무상 길상·벽사 상징**

현재의 전등사 모습은 <조선사찰 31본산 사진첩>(1929년)에 담겨진 옛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대웅

전과 대조루 등 몇 동의 전각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새로 들어선 것들이다.

그러나 황적인 가람배치 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전각들을 좌우로 정렬 시켜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다. 오른쪽에서부터 대웅보전, 향로전, 약사전, 명부전이 같은 석단에 자리하고, 그 아랫 공간에는 적묵당, 종루, 대조루, 종무소, 요사채 등이 자리하고 있다.

대웅보전 네 군데 귀공포에는 나무(棟)의 상이 조각돼 있다. 이 나무상에는 대웅보전을 짓던 도연수와 마을 주민 사이에 얽힌 전설이 있지만, 그건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이들의 우스개 소리일 것이다. 이 상은 길상과 벽사를 상징하는 원숭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주사 대웅보전 앞의 원숭이상, 선암사의 원숭이석주, 강화 선원사 절터에서 발굴된 원숭이상 등 절집에는 원숭이와 관련된 조각이 여러 곳에 남아있다. 대조루는 멀리 바닷물의 들고남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대조루에서 굽어보면 한강과 서해바다가 만나는 강화해협 열하(鹽河)가 멀리 내려다 보인다.

그러나, 좀더 불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루에도 팔만사천번씩 파도 치는 무상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린다는 의미일 것이다.

대조루 옆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풍나무로 추정되는 단풍나무가 있다. 관목처럼 즐기 아래쪽부터 부챗살처럼 줄기들이 뻗어나가서 마치 느티나무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몇 그루의 단풍나무가 한자리에 엉켜서 자란 것임을 알 수 있다.

종루 옆에 그늘이 좋은 느티나무가 있고, 나무의 자가 빙 둘러 있어서 탐방객들이 잠시 숨을 돌리기도 한다. 앉아서도 경내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절묘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끊임없는 관광객 발길로 식생 빈약**

정족산은 산체가 작고, 주변의 산들과 이어지지 않은 특산이다. 그리고,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사철 끊어지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식생이 빈약하다.

4월 중순이면 아직 봄꽃이 이르기 하지만, 꽃을 피운 정족산의 초본은 열 손가락 남짓하다. 제비꽃 종류와 개별꽃, 한호색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제비꽃 무리는 모두 48종이나 되며, 모두 여러해살이 풀이다. 이들을 색깔로 나누면 흰색, 노란색, 보라색, 자주색 등이다. 줄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도 나뉜다. 전등사 주변에는 줄방제비꽃, 알록제비꽃, 털제비꽃, 남산제비꽃 등이 관찰되었다.

정족산은 늙은 소나무와 젊은 활엽수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혼호림이다. 비목은 동문과 남문 사이의 숲에 작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비목은 녹나무과에 속하는 난대성 낙엽교목으로, 전등사 비목은 남한에서는 가장 북쪽에서 자라는 것이다.

소나무 종류 가운데 키가 크고 열매가 굵은 것을 왕소나무라고 한다. 전국에 흔하지 않은 왕소나무가 남문에서 서문 사이 구간의 숲에 자리하고 있다. 키가 무려 15m나 되고, 가슴 높이가 줄기 지름이 60cm에 가까운 노거수이다. 현재 수령이 160년으로 추정되며, 보호수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솔씨 자연발아 이뤄지지 않아 고민**

정족산의 소나무들은 재질이 우수하지는 않지만, 강화도의 역사적 풍상과 함께 해온 나무이다.

군락으로는 대웅보전 뒤편과 남문 밖 주차장계 숲이 인상적이다. 대웅보전 뒷산을 수행의 숲이라고 한다면 남문 밖 숲들은 탐방객들을 위한 휴식의 숲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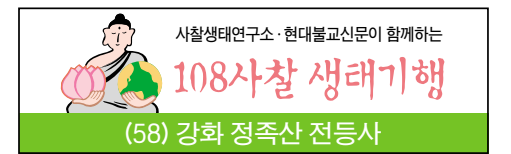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족산 소나무는 전성시대가 지났다. 활엽수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동문에서 달맞이고개 구간에만 솔씨가 떨어져서 자란 어린 치수들이 보일 뿐, 거의 전역에서 자연발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자연천이(遷移)에 맡겨 둘 것인지, 아니면 식재라도 해서 소나무 산으로 계속 가꾸어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족산의 포유류로는 탐문 결과 고라니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생태계로 보면 고라니가 정족산에서 살아남기란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일이다.

남문 인근에 수양버들이 지키고 있는 큰 연못 하나가 있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방치 상태에 놓여있다. 생태연못으로 다시 조성해서 정족산의 비오 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강화 전등사 전경



전등사 대웅보전 느티나무



개별꽃은 꽃모양이 별처럼 생겨 얻은 이름이다.



애뜻한 전설을 간직한 전등사 은행나무

www.shmall.net

# 달마의 氣

건강과 행운의 징표를 그대에게 선물합니다.

名家인터내셔널

고객상담전화 1588-3278

## 新春大福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

달마란 예부터 병귀(病鬼)나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액을 차린하고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마 목걸이, 귀고리를 착용하여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누리세요. 반드시 행운이 당신곁에 함께 합니다.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널 • 판매원 : (주)S.H상사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01호